



序 文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資本主義의 理念은 한마디로 政治, 經濟, 文化의 모든 영역에서 自由가 보장되는 社會體制의 구현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個人의 自由와 幸福추求에 대한 權利를 존중하는 政治形態, 多様な 價値를 수용하는 다원적인 文化構造, 市場機構 존중의 經濟體制로의 지향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經濟的 資本主義는 政治的 自由主義 文化的 多元主義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함께 발전되어 왔고 또 같은 原理, 같은 價値, 같은 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전통적 견해로는 民主主義 政治體制와 市場經濟와의 연관성이 역사속에 나타난 우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兩者의 연관성은 그 이상으로 밀접한 것이며 政治的 民主主義는 실제로 市場經濟의 存立을 전제로 하고 있다. 個人의 自由와 創意, 企業의 競爭의인 自由活動의 保障없이 經濟的 自由란 있을 수 없으며 經濟的 自由없는 政治的 自由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民主資本主義의 具體的 實行者인 企業이 그 社會的 機能과 役割을 다 할 수 있도록 環境을 造成하는 일이며 企業은 기업체로서의 社會的 責任을 다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企業 機能의 合理化·效率化·活性化가 국가사회의 다이내믹한 발전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들과 全經聯會員社 임직원께 같이 감사한다

1983 년 11 월

韓國經濟研究院
代表理事·副院長 金 鎮 炫

차 례

序 文

20世紀 後半의 民主資本主義 環境과 企業의 對應戰略 7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將來 11

韓國의 近代經濟成長과 民主資本主義 26

討 論 38

現代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71

討 論 81

「民間企業主義 發展戰略」 시리즈 書評 88

民主資本主義의 基本視角(趙 淳) 90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와 宗教(鄭 載 種) 97

社會經濟體制의 神學的 探究(韓 弘 淳) 105

마이클 노박의 經歷과 思想 113

附 錄 I 124

The Future of Democratic Capitalism and Corporations 124

Modern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Democratic Capitalism 142

Capitalism and Socialism in the Current World 155

附 錄 II 166

Democracy and Development 166

A Theology of Development and Corporation 186

지난 200년 동안 社會體制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韓國에 있어 그러한 歷史는 불과 지난 40년간에 이루어진 것이 전부다. 世界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일어났다. 企業家가 世界史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貴族主義國家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유럽에서 企業家階層의 대두는 貴族의 몰락을 가져왔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직자의 몰락도 가져왔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階層은 宗教的 指導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宗教的 指導者는 各分野의 많은 指導者들 중 하나의 指導者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宗教的 指導者의 몰락은 知性人의 沒落을 가져왔다. 이는 企業人들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問題이다. 그것은 한 時代의 貴族, 聖職者, 知識人, 軍部の 沒落과 企業人의 浮上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知性人들은 反資本主義的 精神과 企業에 대한 혹독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비판은 어느 측면에서 정당한 것이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企業指導者는 현실문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뛰면서 중대한 문제를 간과 해 왔다. 그들은 社會에서 갑작스럽게 指導者가 된 것을 모르고 있다. 社會에서 指導者가 되기 위해서는 政治的 問題와 함께 文化·道德的 問題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고, 經濟的 問題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企業指導者들에게 社會的 責任을 물을 때 질문중의 하나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며, 經濟發展이 傳統的 價値와 文化·道德的 體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企業人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政治的, 道德的, 知的 使命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미래의 企業指導者들이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200년 전과 똑같이 다시 政治的 統制를 받을 것이고 理想마저 잃어 버릴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南北戰爭에 대해 “하나의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모든 民主資本主義社會도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美國이나 그의 나라들은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다.

民主資本主義는 매우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歷史上 유례

없는 成長과 繁榮을 人類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이 제도의 永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民主資本主義는 근본적으로 그 體制를 떠받쳐주는 일련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념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제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현실적이면서 또한 정신적 인간, 이념적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歷史는 퇴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未來를 향해 전진의 자세를 기다림을 수 있는 것이다.

대개의 宗教는 未來를 위한 조건으로서 현재의 犧牲을 강조한다. 나는 民主資本主義 社會가 傳統宗教와 잘 화합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和合하기도 무척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종교와의 화합을 위해 사회적 후퇴를 강조하지는 것도 아니다. 民主資本主義는 宗教의 多樣性을 인정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民主資本主義를 신봉할 수 있는 동시에 어떤 宗教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民主資本主義는 結社의 自由를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宗教的 自由와 協同을 영위한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宗教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릴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이유로 政治的, 經濟的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지도 않는다.

民主資本主義는 유럽의 宗教戰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한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애당초 다양한 宗教(심지어 살인자들의 종교까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름없이 현실적인 질서 속에서 實踐的으로 協同할 수 있는 體制가 되도록 고안되어졌다. 나는 協同과 結社가 民主資本主義社會의 本質이며 價値이며 制度의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國際的으로 볼 때 國家들은 평화시에만 서로 交易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國際社會에서 왜 平和가 필요한가를 말해준다. 평화로운 狀態란 각 國家들이 그들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商品을 구입할 수 있고 반대로 그들이 생산한 製品을 他國에 수출하는 國家間 去來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거래란 말은 協同的 活動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조차도 去來(commerce)란 단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확히 相互協同이기 때문이다. 西歐에서 協同의 풍습은 修道院의 戒律에서 비롯되었다. 베네딕트 寺院들이 최초의 多國籍 組織體였는데 거기에서는 치즈, 꿀,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국경을 넘어 팔았다. 그 수도원들은 西歐에서는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최초의 組織體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世代보다 生存期間이 길게 마련인 하나의 自然人과 같은 것으로서 인식되어지는 法人規程을 가졌다. 그것은 現在의 企業法人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企業法人도 한 세대 이상 지속되는 組織體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企業的 法的基礎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특히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創造性이다. 富의 創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스미드는 “그것은 知識이다”라고 答辯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體制를 마르크스가 資本主義라고 명명한 것은 옳은 일이다. 마르크스는 資本과 肉體的 勞動을 분리하는 制度를 定義하려 했다. 만일 資本과 勞動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資本主義를 가질 수 없다. 資本主義의 어원은 라틴어의 머리라는 뜻의 *Caput*에서 따온 것이데 멋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富의 源泉은 知識이고 오늘날 富를 創造해 내는 것은 바로 人間의 精神이다. 數世代를 걸쳐 人間은 神이 지구에 묻어 놓은 거대한 富의 秘密을 발견하지 못한채 살아왔던 것이다.

달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프로그램에 총 4,000억달러를 支出하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다.

質問: 貧困문제의 해결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노박: 물론 그렇다. 그러나 美國은 필요한 費用보다 더 많이 支出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美國의 경우 貧困이란 經濟的인 문제가 아니라 文化的 次元의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들의 文化때문에 所得을 어떻게 獲得하며 또 貯蓄하고 消費해야 하는지 가르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貧困은 經濟의 문제가 아니라 文化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美國의 貧困이 바로 이런 것의 일종이다.

質問: 政府가 個人의 福祉문제에 干여할 때 누가 가장 많은 惠澤을 입는다고 생각하는가.

노박: 教授 등 知識層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福祉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운영하기 때문이다(웃음). 知性人 중에 社會主義者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2次世界大戰 이후 美國의 政治가 發展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美國歷史의 중심에 企業家들 대신 그러한 知性人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年前에 企業人들이 貴族의 자리를 차지한 것 과도 같은 것이다. 知性人들은 政府의 役割이 팽창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가장 惠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가 教育이나 福祉費用을 증가시킬수록 高級人力의 자리가 늘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끝으로 나는 UN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 여러 곳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第3世界에 관해 나의 主張에 대한 整理를 곁해 言及해 보기로 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世界에는 160個의 국가가 있을 뿐이나 160個 나라를 다 이야기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를 宗教와 文化的 차이에 따라 6個의 世界로 나누고자 한다.

第3世界란 富有的 產油國, 즉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이다. 第4世界란 中共을 제외한 아시아諸國, 第5世界란 南美, 그리고 第6世界는 아프리카로 보고자 한다. 나는 大陸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宗教와 文化에 따라 나눈 것이다. 아프리카의 宗教란 南美의 宗教와 전혀 다르다. 南美

의 宗教는 基督教이지만 文化에 있어서 北美 및 유럽과는 또 다르다. 아시아의 다이나미즘 또한 다른 地域과 다르다. 아시아의 生活水準은 今世紀末이면 유럽을 능가하거나 같은 水準이 되리라 예상된다. 그들의 世界市場 占有率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世界 總生産量의 더욱 많은 比率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精神과 社會的 團結力 그리고 教育水準은 아시아가 다른 곳보다 월등하다. 지난 10년 간 美國에 거주하게 된 移民의 數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온 移民의 數가 가장 많았다. 美國大學에서 그들의 成績은 월등하다. 아시아의 未來는 매우 낙관적이다. 그러나 南美의 未來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南美는 풍부한 資源을 바탕으로 지난 10年間 年 5%의 經濟成長을 달성했다. 이것은 유럽이나 北美보다 높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또한 심각하다. 아프리카의 경우 世界의 어디보다도 社會主義者들이 많다. 이 地域은 25年前에 비하여 별로 進歩한 것이 없다. 오히려 貧民들의 數는 더 늘어났다. 풍부한 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成長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地域에서는 農業生産의 67%가 女性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男性들은 勇士라 자처하며 별로 일을 하려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는 이와 같이 文化的으로 많은 問題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成長을 經濟的 측면에서만 보지 말자는 것이다. 成長을 文化的 측면에서 고찰하면 많은 敎訓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經濟學도 政治學도 이러한 點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民主主義, 資本主義, 多元主義의 精神的 뿌리를 찾는 研究는 바로 文化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 時代는 諸分野에 대한 精神的 측면에서의 보다 深層的인 研究가 要求되고 있다 하겠다.

①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마이클 노박 編著 / 金鎮炫 譯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 대한 올바른 認識은 民主資本主義의 理想을 實現하는 필수적 기초가 된다.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精神의 基盤, 倫理的 評價, 內的 論理에 대한 實在(reality)의 탐구에 노력을 기울여 兩理論에 대한 보다 精교하고 高次元의 理解에 접근한 比較體制論. <값 3,000 원>

②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마이클 노박 編著 / 金鎮炫 譯

現代社會에서 企業이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政治, 經濟, 文化·道德의 측면에서 企業은 어떤 機能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 책은 經濟的, 文化·道德의 측면에서의 企業의 役割외에도 自由政治體制, 國家主義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등장, 국가 외의 권력의 창출과 같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다운 企業의 全體像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값 3,500 원>

③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

마이클 노박 編著 / 金鎮炫 譯

國家와 個人 사이에 존재하는 調整構造의 役割은 民主社會의 유지, 성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책은 지금까지 國家나 個人에게만 초점을 맞춰온 전통적인 政治·經濟分析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 民間調整機構들을 動態的·實證的으로 分析함으로써 新政治(New Politics)를 향한 새로운 地平을 열고 있다. <값 3,500 원>

④ 民主資本主義의 將來

마이클 노박外 著 / 金鎮炫 編譯

우리의 現實的 體制인 民主資本主義는 과연 危機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社會進化의 歷史法則에 따라 필연적으로 社會主義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神學者이자 思想家이며 言論人인 마이클 노박은 그의 해박한 知的 分析을 통해 民主資本主義의 歷史와 理想을 새롭게 긍정적인 視角에서 조명하면서 民主資本主義의 現代的 回生을 위한 「思想의 戰爭」을 선언하고 있다. <값 2,500 원>

⑤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마이클 노박

民主資本主義의 理想과 實際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 神學的 前提, 價值, 그리고 體系의 意圖까지를 함축한 마이클 노박의 『精神의 國富論』, 富의 創出과 經濟發展의 動因으로 人間의 創造精神을 강



民間企業主義 發展戰略 시리즈 5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우리가 追求해야 할 民主資本主義의 理念은 政治, 經濟, 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自由가 保障되는 社會體制의 구현이다. 그것은 具體的으로 개인의 自由와 幸福追求에 대한 權利를 존중하는 政治形態, 다양한 價値를 수용하는 多元的인 文化構造, 市場機構 존중의 經濟體制로의 지향을 뜻한다.

그러나 民主資本主義가 제대로 作動·機能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道德的, 文化的 基盤과 環境造成, 그리고 철저한 知的 再構成이 필요로 되고 있으며 政治·經濟體制의 合理化, 效率化, 活性化가 國家社會의 力動的 發展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韓國經濟研究院

民間企業主義 發展戰略 시리즈 5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마이클 노박

韓國經濟研究院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마이클 노박

그러나 민주주의 논리와 시장경제의 논리만이 서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政治·經濟體制는 多元的 自由主義 文化에 의해 육성되며 多元的 自由主義 文化體制야말로 이 두 체제를 가장 잘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일지기 아담 스미드는 經濟와 道德의 相關性을 깊이 인식하였다. 그의 『國富論』과 『道德情操論』은 바로 이를 강조하고 있다. 『國富論』은 個人의 自由·競爭·利潤·快樂追求를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인 市場價格을 지표로 하여 움직일 때 社會價値도 저절로 증대된다고 본데 반해 『道德情操論』은 個人이 갖추어야 할 諸德性, 즉 勇氣·協同·勤勉·秩序 등의 重要性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經濟學은 道德을 捨象해 버렸고 특히 近代經濟學과 新古典派 綜合은 人間을 道德없는 純粹經濟人으로 抽象化하면서 언제나 이윤만을 추구하는 극도로 利己의인 人間을 상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의인 體制인 民主資本主義는 精神的 價値와 德目없이 存立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道德的·文化的 기반을 필요로 한다. 個人과 共同社會의 特質, 自由와 罪, 歷史의 可變性, 勞動과 貯蓄, 自制와 協同 등에 대한 어떤 道德的·文化的 前提가 없다면 民主主義나 資本主義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날 民主資本主義는 이에 맞는 道德的·文化的 基盤과 環境造成 그리고 철저한 知的 再構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같은 現實의 認識으로부터 本院은 「民主資本主義의 理念의 發展과 民間企業主義 伸張」을 위한 연구·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本院은 지난 9月初 美國의 저명한 神學者이자 社會思想家인 마이클 노박教授를 초청,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將來」라는 주제의 대중강연회와 「韓國의 近代經濟成長과 民主資本主義」 및 「現代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라는 主題의 學術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그와 같은 일련의 대중강연회 및 학술세미나의 主題發表와 討論內容을 모아 엮은 것이다.

노박教授는 현재 美시라큐스大學 宗敎學科에 재직하면서 公共政策研究

의 最高 頭腦集團이라 할 수 있는 美企業研究所(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宗教·哲學 및 公共政策研究責任者로 있다. 그는 한마디로 第2의 아담 스미드, 第2의 막스 베버, 第2의 슈메터라고 할 수 있는 美國의 저명한 知識人이며 學者이다. 그의 學問領域은 神學, 哲學, 經濟學, 政治學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人權·企業의 問題 등 현실의 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활동과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노박教授는 企業을 經濟的 主體로서 뿐만 아니라 民主政治의 理想과 文化的 多元主義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構造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또한 企業을 神學的 측면에서 접근하여 創造主人 하느님의 神性に 가까운 것으로 人間의 創造性을 들고 人間의 神性を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機構 또는 組織을 企業이라고 보고 있다.

노박教授는 訪韓期間中, 9月2日에는 全經聯 重鎮會議 參席演說(主題: 20世紀後半의 民主資本主義 環境과 企業의 對應戰略)과 本院이 韓國 經濟新聞社와 공동주최한 大衆講演會(主題: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將來), 9月3日에는 本院 주최 學術세미나(主題: 韓國의 近代經濟成長과 民主資本主義), 9月5日에는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주최 學術세미나(主題: 現代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서의 주제발표 외에도 韓國의 종교계, 학계, 재계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우리 경제인, 지식인, 문화인에게 큰 자극과 감명을 주었다. 특히 本院 주최 學術세미나는 한 주제를 가지고 經濟學, 社會學, 政治學 등 社會科學者와 가톨릭, 改新敎, 佛敎, 儒敎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學際的(interdisciplinary)인 論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韓國 初有의 일이었다.

本研究院은 韓國의 民主資本主義 發展을 위하여 앞으로도 이 方面의 노력을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84~85년 경에 마이클 노박 教授의 再訪韓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個人과 企業의 創意와 活力이 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되도록 民主資本主義 體制에 대한 確信을 새롭게 하는 일이며 이를 가꾸어 나가는 일이다.

노박教授의 訪韓 招請과 관련하여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관계인

택히 反知性的이었다. 그는 냉정한 論究와 침착한 熟考에 반대했다. 소렐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 즉 폭력을 위한 폭력의 행위다. 神話가 무엇을 의미하든간에 이 神話를 깨부수기 위한 투쟁이 그의 권고였다. “만약 이런 神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판적인 논박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¹⁾ 파괴를 위해 파괴를 부르짖다니 이 얼마나 기묘한 哲學인가? 論議하지 말라, 따지고 들지 말라. 단지 죽여라! 소렐은 심지어 革命을 옹호하는 저서까지를 포함하는 ‘知的인 노력’마저 거부한다. 그가 내세운 또 다른 神話의 본질적인 목표는 “존재하는 것의 파괴를 위해 인민으로 하여금 투쟁하도록 각오하게끔 만드는 일”이다.²⁾

그러나 파괴주의적 사이비 哲學의 보급에 대한 책임은 소렐이나 레닌, 뭇솔리니, 로젠버그(Rosenberg; 독일의 나찌 지도자이며 作家, 1863~1946—譯註)와 같은 그의 제자들, 一群의 무책임한 知識階級 및 藝術家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앙은 수십 년 동안 거의 아무도 광신적 무퇴한들의 호의적 意識을 감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박하려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무모한 폭력의 思想을 솔직히 지지하기를 피했던 著述家들마저도 獨裁者들의 최악의 無節制를 어떤 면에서 동정적으로 해석하기에 열중했었다. 최초의 소심한 反論이 제기된 것은—참으로 너무 뒤늦게도— 겨우 이러한 諸政策의 知的인 선동자들이 심지어 全體主義的 이데올로기의 열성적인 지지조차도 고문과 처형으로부터의 免除를 보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였다.

오늘날에는 가짜 反共產主義 戰線이 존재한다. 그들 자신을 ‘反共產主義的 自由主義’라 칭하고, 온건한 사람들이 보다 정확하게 ‘反—反共產主義者(anti-anticommunists)’라 칭하는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아직 美國人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共產主義에 고유하고 필연적인 그러한 특징도 없는 共產主義다. 그들은 共產主義와 社會主義의

구분에 있어 착각을 범하고 있으면서 —아주 역설적이게도—비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데 뒷받침이 되는 논거를 「共產黨 宣言」이라고 부르는 문서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제국경제국가나 복지국가란 별칭으로 부르는 정도로서 그들의 논거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共產主義者들(the Reds)’의 革命的이고 獨裁的인 야망을 거부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책이나 잡지, 학교나 대학에서 共產主義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창자인 칼 마르크스를 가장 위대한 經濟學者, 哲學者, 社會學者 중의 한사람으로, 또한 인류의 탁월한 은인이나 해방자로서 찬양한다. 그들은 삼각형 같은 사각형이란 말과 다름없는, 非全體主義的 全體主義가 萬病統治藥이라고 믿게끔 만들기를 원한다. 그들은 共產主義에 대해 어떤 온건한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구사한 비난적인 어휘로부터 빌어온 말로써 資本主義를 매도하는 데 열중한다. 그들은 共產主義보다도 훨씬 더 열성적으로 資本主義를 멸시하고, 共產主義者들의 온갖 불미스러운 행위를, 資本主義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소름끼칠 듯한 혐오감>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정당화한다. 요컨대, 그들은 인민들을 「共產黨 宣言」의 사상에서 전향시키려는 의도로 共產主義와 투쟁하는 척 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칭 ‘反共產主義的 自由主義者들’이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은 共產主義 자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지배적 위치에 있지 못한 일종의 共產主義 體制와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장 친밀한 동료들이 政權을 잡는 體制인 社會主義, 즉 共產主義 體制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숙청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나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절대로 숙청당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오직 最高位의 獨裁者와 그의 幫助者만이 이러한 보장을 받는다.

<어떤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란 완전히 否定的인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이러한 反對運動의 통렬한 비난은 그들이 공격하는 綱領을 선전하는 결과가 된다. 사람들

1) G. Sorel, *Réflexions sur la violence* 3d ed., Paris, 1912, p. 49 참조.

2) Sorel, 앞의 책, p. 46 참조.

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어떠한 惡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그 惡을 단지 거부만 해서 는 안된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市場經濟體制의 綱領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共產主義는 소련의 실행과 은갖 社會主義的 실험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환멸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가짜 反共產主義만 없다면 오늘날 西歐에서 성공할 가망은 거의 없을 것이다. 西歐, 美國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 西洋文明諸國이 소련 政府의 만행에 의해 노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自由放任主義的 資本主義에 대한 공개적이고 무제한적인 지지뿐이라 생각된다.

附 錄

1]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마이클 노박 編著 / 金鎮炫譯 크라운판/281P/값3,000원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理念과 實際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高次元的인 이해에 접근한
比較體制論.

2]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마이클 노박 編著 / 金鎮炫譯 크라운판/337P/값3,500원
資本主義經濟體制와 現代社會에서 企業이 갖
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思想的 涵蓄성까
지를 검토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企業
神學.

3]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

마이클 노박 編著 / 金鎮炫譯 크라운판/325P/값3,500원
날로 強化되는 國家統制論에 맞서 公開的인
고 自發的으로 싸워 나가야 할 여러 民間調
整機構들의 구체적인 對應策과 實踐倫理를
提示한 指針書.

4] 民主資本主義의 將來

마이클 노박 著 / 金鎮炫 編譯 크라운판/183P/값2,500원
民主資本主義의 現代的 回生을 위해 思想과
理念의 戰爭을 선언한 資本主義 擁護論.

5]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마이클노박, 金鎮炫編 크라운판/202P/값3,000원
民主資本主義에 대한 哲學的, 神學的 考察
과 함께 歷史發展의 動因으로 人間의 創造
精神을 강조한 精神的 國富論.

6] 資本主義精神과 反資本主義心理

미제스著 / 金鎮炫 編譯 크라운판 / 221P/값3,000원
自由市場經濟原理를 강조하고 反資本主義的
왜곡을 分析, 그 動因과 結果를 폭로한 自
由經濟哲學.

쓰는 職業의 悲嘆과 積勞감을 혼자 되씹게 된다.

金在益兄!

편히 계시오. 金兄이 지켰던 民主資本主義 原理와 精神은 時間이 걸 리더라도 이 땅에 만드시 實現될 것이오. 市民의 底力이, 民族의 活力이 꼭 이룩할 것입니다. 金兄의 信念을 代辯하는 이 책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故 金在益博士와 遺族들에게 天主님의 加護 더욱 크시기를 거듭 빌니다.

1984년 4월

韓國經濟研究院
代表理事·副院長 金 鎮 炫

차 례

머 리 말

제 1 부 現代經濟思想과 經濟政策

序 言

I. 資本主義	15
II. 社會主義	28
III. 干涉主義	47
IV. 인플레이션	63
V. 海外投資	80
VI. 政策과 思想	94

제 2 부 反資本主義心理

序 言

I. 資本主義의 社會的 特徵과 그 誹謗의 心理的 要因	111
II. 一般大衆의 社會哲學	137
III. 資本主義下의 文學	148
IV. 資本主義에 대한 經濟外的 批判	168
V. 反共產主義 對 資本主義	193

附 錄

미제스의 經歷과 思想	201
미제스의 著作에 대한 評價	206
미제스의 主要著作	213
미제스 이전 오스트리아 新古典學派의 主要著作	216

序 言

이 책은 著者の 기본적인 論據를 완전하리 만큼 잘 반영하고 있다. 그의 論據는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아직도 同調者들로 부터는 경탄의 찬사를, 反對者들로 부터는 비방을 듣고 있다. 6개의 講演은 제각기 독립된 試論이 될 수 있으면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자아내는 調和는 마치 훌륭하게 설계된 大建築物의 건축양식을 볼 때 느끼는 美的 快感을 자아낸다.

1979년 프린스턴에서
프리즈 매클렘

1958년 말 나의 남편이 알베르토 베네가스 린치(Alberto Benegas-Lynch) 박사의 초청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일련의 講演을 할 때, 나도 남편과 동행토록 요청받았다. 이 책은 남편이 그 때 아르헨티나 학생들에게 한 講演 내용을 엮은 것이다.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것은 페론(Peron)이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를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의 統治는 파괴적이어서 아르헨티나의 經濟的 基盤이 철저히 붕괴되어 있었다. 그의 後任者인 에두아르도 로나르디(Eduardo Lonardi)도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남편 역시 이것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강연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의 어마어마하게 큰 강당에서 英語

로 진행되었다. 이 강당과 인접한 두 개의 교실에서는 그의 강연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되어 학생들이 이어폰으로 들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資本主義, 社會主義, 干涉主義, 共產主義, 파시즘, 經濟政策 및 獨裁政治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의 강연을 듣고 있던 젊은이들은 市場의 自由나 個人의 自由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다. 이때의 일에 대해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함께 살(My Years with Ludwig von Mises)』에서 썼듯이 “그 당시 나의 남편처럼 누군가가 감히 共產主義와 파시즘을 공격했다라면 즉시 경찰이 뛰어들어 그를 체포했을 것이고 모임은 해산되었을 것이다.”

청중들의 반응은 마치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 젖히고 신선한 산들바람을 맞아들이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아무 원고도 없이 이야기 했다. 언제나처럼, 그의 思考는 종이쪽지에 적힌 몇 마디의 단어를 따라 전개되었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한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비교적 단순한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강연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에게 그의 見解를 성공적으로 전달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가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강연은 녹음된 다음,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비서가 옮겨 썼다. 비서가 타이프 친 원고는 후일 남편 遺稿들 가운데서 발견되었다. 이 寫本을 읽으면서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남편의 말에 유난스러운 熱誠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던 모습을 생생히 떠올렸다. 經濟學者가 아닌 내가 보기에도 南美의 평범한 청중들에게 들려준 이 강연은 루트비히 폰미제스의 많은 이론적인 著作들 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았다. 이 강연은 현재와 장래를 위해 중요한 思想과 귀중한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들이 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된다고 느꼈다.

남편은 講演內容을 출판하기 위한 손질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하는 일은 내가 맡게 되었다. 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文章의 意味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고스란히 살렸으며, 남편이 곧잘 사용

해서 그의 청중들에게 친숙해진 표현들도 모두 그대로 남겨 두었다. 내가 한 일이라곤 단지 文章들을 이어 붙이거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대수롭지 않은 어휘들을 추려내는 것 뿐이었다. 이 講演을 책으로 만들어 내리는 나의 試圖가 成功했다면, 이는 그의 文章과 함께 내가 남편의 肉聲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지나치게 비대한 統治權力의 害惡과 위험성을 그렇게도 분명하게 논증했으며 獨裁政治와 干涉主義의 차이점을 그토록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서술했던 그, 그리고 풍부한 機智로 중요한 역사적 人物들을 논하는 가하면 얼마안 되는 말로도 過去를 오늘에 되살리는 데 성공했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講演이 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가 아닌 남편의 많은 동조자들에게도 읽혔으면 싶다. 그리고 이 책이 젊은 독자들, 특히 전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1979년 6월

뉴욕에서

마르기트 폰 미제스

資本主義精神과 反資本主義心理

思想만이 世界와 歷史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

우리 世代에 필요한 것은 그릇된 思想에 대한 鬪爭이다. 우리는 이제 思想의 戰爭을 치루어야 할 準備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그릇된 思想을 올바른 思想으로 대체시켜 나가야 하며 그와 같은 思想이 說得力 있는 方法으로 提示되어야 한다.

우리의 文明은 슈팽글러나 토인비가 말한 것과 같이 결코 宿命的인 것이 아니다. 우리 文明은 살아 남을 것이고 또 살아 남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보다 나은 思想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世代에 맡겨진 課題이다.

資本主義精神과 反資本主義心理

미제스 著
金鎮炫 編譯

루드비히 폰 미제스

(1881~1973)

● 오스트리아 태생의 美國 經濟學者, 社會 哲學者. 오스트리아 學派의 傳統을 계승한 現代自由主義 經濟學의 대표적 學者. 經濟 理論家로서 社會主義를 批判했고, 社會 思想家로서 自由主義를 信奉.

● 1906年 빈 大學 卒業. 1909年~34年 오스트리아 商工會議所 經濟顧問. 1913年~38年 빈 大學 經濟學 教授. 1934年~40年 제네바의 高等國際研究院 經濟學 教授. 그 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등의 大學 및 研究所에서 講義와 研究. 1945年~69年 뉴욕 大學 客員 教授. 1969年 이후 뉴욕 大學 各譽客員 教授.

● 1957年 Grove City 大學과 1963年 뉴욕 大學에서 名譽法學 博士學位, 1964年 Freiburg 大學에서 名譽政治學 博士學位 받음. 1962년 오스트리아 政府의 學術賞 受賞. 1969年 美國經濟學會賞 受賞.

● 主要著書로서는 『官僚制度』(1944), 『萬能 政府』(1944), 『計劃된 混亂』(1947), 『人間의 行動』(1949), 『反資本主義心理』(1956), 『社會主義』(1969), 『理論과 歷史』(1969), 『貨幣와 信用』(1971) 등 多數.

59

주서를

머 리 말

—이 책을 故 金在益博士에게 바친다—



恨이 남는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이 책은 經濟理念과 思想을 담은 딱딱한 것이지만 머리말을 쓰는 譯者兼 發刊者로서는 더욱 깊고 무거운 感嘆에 빠져 있다.

이 책은 전적으로 故 金在益 靑瓦臺 經濟首席秘書官의 권유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제 햇빛을 보게 된 이 책을 地下에 잠든 故 金在益兄에게 獻呈하고자 한다. 故人과의 約束의 徵表이기도 한 이 책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두 손모아 빈다.

작년 9월 14일 오후 3시, 靑瓦臺 그의 방에서 만난 것이 故人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또 그 자리가 바로 이 책의 發刊이 受胎된 순간이기도 했다. 이는 그 며칠 앞서 9월 1일부터 4일까지, 美시라쿠스大學 教授이며 美企業研究所(AEI)의 宗教 哲學 公共政策研究責任者인 마이클 노박博士를 초청하여 民主資本主義에 대한 세미나와 강연을 마친 뒷마무리였다.

故人은 오랫동안 나를 격려하여 주었다. 나로서는 세미나 主催者로서 그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월 3日の 「韓國 近代經濟成長과 民主資本主義」 세미나에 一般討論者로서 질문도 하고 메시간이나 꼬박 자리를 지켜 준 데 대하여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故人은 東西의 神學, 哲學, 經濟學, 社會學者들이 學際的으로 모인 세미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성과를 評價하며 전뚫 本院이 발행한 노박敎授의 譯書 民間企業主義發展戰略시리즈 2千帙을 소화하여 주었다. 정작 소화해 줄 곳에서는 引受가 부진한 형편에서 더 없이 고마운 일이었다.

故人은 덧붙여 시리즈의 一部로 故人이 좋아하는 미제스敎授의 책을 出版해 주었으면 했다. 그러고 보니 經濟企劃院 企劃局長 시절에도 자주 이 책을 引用하고 나에게도 勸讀했던 기억이 살아났다. 곧 이를 수락하고 돌아와 윗분들께 번역출판 計劃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計劃이 확정되어 착수한 지 열흘도 못되어 그는 또 하나의 經濟發展의 實驗場 버마 땅에서 殉職하고 말았다.

이날 우리들의 相面은 참으로 오랫동안이었다. 2년쯤만 일 것이다. 더 우기 나를 격려해 준 것은 3년여만 이었다. 80年 8月 17日, 그 때 故人은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經濟科學分科委員長이였으며 나는 그 며칠 전 天職으로 알았던 言論界를 쫓거나 人生의 너무 큰 試鍊 앞에 茫然自失하고 있을 때였다. 11시가 넘은 깊은 밤 손수 운전하고 豫告없이 내 집을 찾아 주었다. '政治'의 限界를 故人으로서도 넘을 수 없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날밤 격려는 여섯달 뒤 1個月의 短命의 것이나마 韓國開發研究院의 招請研究員이란 이름을 걸게 해 주었다.

故人은 原理의 사나이였다. 思想도, 禮儀範疇에 있어서도 原理의 知性인이었다. 故人은 그의 뜻, 그의 樣式대로 一直線을 살고 간 原理의 사람이었다.

故人의 民主資本主義에 대한 信念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思想家, 그 어느 經濟學者, 그 어느 企業人, 그 어느 官僚도 그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確信한다.

故人의 市場機構에 대한 일관된 信賴, 附加價值稅制에 대한 끈질긴 執念…… 60年代에서 70年代에 걸쳐 나누었던 故人과의 많은 對話가 지

금 한꺼번에 그리움으로 밀어 닥친다.

해맑은 潮水面같이 잔잔하며 성실한 그 말소리, 소리없이 닥치는 地震처럼 조용하면서도 힘찬 勇氣로 미는 그 推進力, 故人은 확실히 우리 世代에 보기드문 人格의 所有者였다. 知行이 一致된 例外的인 巨人官僚였다. 분명히 이 나라에서 「金在益經濟」의 한 時代를 劃했던 知性官僚의 巨峯이었다.

너무나 原理에 충실했고, 거기에다 實踐의 큰 힘까지 갖추었기에 故人은 個人的 信念體系와는 다른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人間 삶의 또 다른 原理를 덜 중요시 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發展論者이며 改革主義者들이다. 人間의 普遍的 理性的 發展을 믿고 科學과 技術의 進步를 믿고 過去보다는 未來의 改善에 뜻을 같이 해 왔다. 문제는 4千萬 同胞 모두가 原理의 知性を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知性的 世界와 公共政策, 더 나아가 政治의 世界와는 時間의 先後, 手段의 選擇에 있어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普遍主義가 世界主義일 수 없으며, 制度와 技術의 進步가 文化的 發展 없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故人이 學者로서 남았더라면 하는 假想을 자주 해보곤 한다. 우리나라에 不足하기 짝이없는 責任 있는 知性的 風土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리라 믿는다.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충실한 동료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글쓰는 제주 밖에 없어 글쓰는 프로페셔널리즘의 原理에 충실하다보니 同志와 批判者의 役割을 오갔다. 그러나 原理主義者들 간의 知性的 一致와 갈등이 어찌 人間의 아름다운 情宜를 덜추게 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理性과 感性이 함께 슬쉬는 時代의 삶 以上도 以下도 넘지 못하고 가는 것인데……. 보고 싶고 그리움 뿐이다.

나를 아껴주던 人情에 報答할 기회를 주지 않고 먼저 떠난 것이 한없이 험이 되어 쌓여 있다. 어찌 이런 글로 生前에 탁 털어 놓고 꼭 하고 싶었던 公私間의 秘話를 쓸 수 있겠는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는듯 하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된 아쉬움이 저릴수록 글

하게 되었다. ‘市民階級(bourgeoisie)’은 결코 생겨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學者, 藝術家, 發明家들을 격려하고 후원할 민중이 존재하지 않았다. 臣民들의 자손들에게는 개인적인 영달로 이르는 모든 길이 막히고 오직 한 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즉, 君主를 섬기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 뿐이었다. 西洋社會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個個人的 공동체였다. 東洋社會는 진적으로 君主의 은총에만 매달려 있는 臣民들의 덩어리에 불과했다. 西洋의 민활한 젊은이들은 세계를 명성과 고귀함과 富를 쟁취할 수 있는 활동무대로 간주했다.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었다. 東洋의 유순한 자손들은 자신들의 처한 환경의 일상적인 절차만을 추종하는 일외에 아무것도 몰랐다. 西洋人の 고귀한 自己依存의 당당한 표현은 인간과 그 진취적인 노력에 대한 소포클레스(Sophocles)의 合唱曲風, 안티고네(Antigone) 讚歌와 페토벤의 교향곡 제 9번과 같은 열광적인 詩歌에서 발견할 수 있다. 東洋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이제까지 들은 바가 없다.

이와 같은 西洋文明 진실자들의 자손이 그들의 自由를 포기하고 스스로 만능 政府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할까? 전능한 계획 수립자에 의해 고안되고 작동되는 거대한 기계속의 톱니바퀴로 봉사하는 것이 오직 그들의 임무라면, 그들이 과연 그러한 體制에서 만족하겠는가? 정제된 文明의 精神이 수천, 수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고귀한 理想을 휩쓸어 버릴 수 있겠는가? 타키투스(Tacitus; 로마시대의 웅변가·정치가·역사가 55?~117 A.D. —譯主)는 티베리우스(Tiberius; 로마황제, 42 B.C.~37 A.D. —譯註) 시대의 로마인들을 두고 이렇게 우울히 언급했다. “그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다.(Ruere in servitium)”

V. ‘反共產主義’ 對 資本主義

이 세상에 不變性과 不同性이란 있을 수 없다. 變化야말로 生命體의 본질적 특징이다. 모든 세상사는 무상하며 따라서 각 시대는 변천하기 마련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도 평온과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이며, 현상에서의 유지가 아니다. 그런베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불변의 존재라는 이미지에 속아 왔다.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모든 운동의 목표는 역사에 중지부를 찍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의 心理的 動機는 명백하다. 모든 변화는 인생과 행복의 외면적 諸條件을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 변화에 새롭게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변화는 既得의 利權을 해치고 전통적인 생산 및 소비양식을 위협한다. 이 변화는 또한 지적인 활력을 상실하고 사고방식을 수정하기를 겁내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保守主義는 바로 이러한 인간 행동의 특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保守主義라는 것은 기민한 소수에 의해 착수되는, 그들 자신의 諸條件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려는 확실적이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소중히 여겨왔던 網領이었다. ‘反動主義的(Reactionary)’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오직 자신들의 派黨을 보수적이라고 불렀던 貴族과 司祭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그러나 반동적인 정신의 현저한 예는 이들이 아닌 다른 집단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즉, 자신들의 분야에 新參者들이 가입하는 것을 막는 匠人들의 同業組合(guild), 關稅保護, 補